

APHC 2003 오사카 학술대회 참관기

민명희

성모병원 호스피스과장 · 본회 홍보부장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아·태지역국가에서 2년마다 열리는 APHC(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제5차 오사카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일본 제2의 도시로 긴키지방의 중심지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밤 늦게 도착하니 아직도 쌀쌀한 날씨에 굵은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마중나온 복자회 수녀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오사카 교민들의 삶의 애환을 돌보시는 한국순교복자회 오사카분원에 여장을 풀었다.

학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미리 도착하여 오사카 북부지역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로 '가톨릭 이꾸노 한인성당'에서 전례부장으로 봉사하는 노선에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민간·공공복지의료시설을 방문하여 의료설비와 운영실태 등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견학하였다.

노인 개인의 ADL(Activities of Daily Life: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이 일정 지역주민과 주정부의 합의로 주거단지의 중간지점에 설립, 공동관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시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특이한 것은, 밝고 활기찬 20대 남녀들이 중심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마치 친

부모를 대하듯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었는데 참신한 일본 젊은이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엿보였다.

이튿날 이른아침 차창으로 굵은 장대비를 맞으며, 수도회의 카리스마가 병원사도직인 '병원수녀회'가 운영하는 3개 종합병원 중 하나로, 1950년 히로시(姫路市)에 설립한 '히메지성모병원(HIMESI St. Mary's Hospital)'에 도착하니 응급센터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토요일 오후인데 직원과 환자들이 로비에서 활보하는 모습은 평일을 방불케 했고, 전체적으로 활기차면서도 짜임새있게 정리되어 집처럼 편안한 이상적인 병원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이사장인 피텔리스 관구장수녀님과 점심식사를 같이했는데, 지난 반세기동안 이곳 중산층 서민들을 돌봄으로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적 품위를 높이는 숭고한 사명인 수도회의 이념구현을 위해 지역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내 지난 2002년 3월에 ISO(국제표준화기구)자격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에 자신감과 긍지가 차 있었다.

8년전 1996년 5월에 신설된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은 1인실 10병상 규모로 암환자병동과 옥상정원 사이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동선이 짧아 스태프들의 환자 접근성이 높았고 복도공간을 이용한 물리치료와 음악·미술요법 등이 실시되었

는데, 마침 그날 오후 2시 일본의 전통음악연주가 1시간정도 진행되어 비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를 은은한 가야금선율로 씻어내는 듯 했다. 병동에서 처음 만난 우리에게 ‘호스피스’ 라는 하나의 인연만으로 퇴근시간을 잊은 채, 병동의 연중예산을 비롯해서 호스피스 의료보험 급여,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행사, 100명 가까운 정규, 비정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현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는데 소탈한 성품의 호스피스 수녀님과 원목신부님, 간호사와 봉사자들의 진솔하고 친절함 태도는 우리들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하였다.

호스피스가 우리나라 보다 20년이나 늦게 시작된 일본이 95년에 호스피스를 의료보험 진료항목에 포함시킨 데 이어, 98년엔 시설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으로 독립된 완화·의료병동이 속속 개설되어 현재 1백40여 곳에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 중이며, 호스피스 환자들은 자기 집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질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전체 입원비의 10%정도 밖에 안되는 비용을 개인부담하고 있는데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호스피스정책 외에도 사회저변에 확산되어있는 기부문화의 정착과 ‘일본재단’ 이라고 하는 대규모 후원단체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3월 6일 오후 2시경 학회장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메인 홀 로비에는 차기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을 알리는 ‘APHC 2005 한국 홍보데스크’ 가 마련되어 우리나라와 문화를 홍보하였으며, 서울대회의 준비위원장인 이경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참가자들이 각국의 참가자들과 어울리면서 2005년 한국방문을 독려하였다.

오후 6시 드디어 ‘제5차 APHC이 “Evolution and Integr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를 주제로 그 막이 올랐다. 25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Opening Ceremony로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 기타무라 요시히로(Yoshihiro)의 ‘Feeling Arts’ 시연이 있었는데, 일본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다양한 색채의 미술작품과 여기에 비추어지는 다양한 조명과 빛을 통하여 감각을 자극, 느낌을 유도하여 Relaxation 및 Meditation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갖게하였는데, 이러한 연출은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음악치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전통적 현악기와 목피리 공연이 무대에 설치한 대형 화폭의 현란한 색채와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를 이루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중하였고 훌륭한 연주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둘째날, 주제강연 ‘The Spread of Hospice Palliative Care’ 를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이 발표하였고 이어진 구연발표는 △완화의료의 실제와 영적 돌봄 △증상 및 통증관리 △QOL & 문화적 문제 △가정호스피스의 서비스개발 △사별간호와 자원봉사활동의 주제로 session이 있었는데 5개 방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선택의 폭이 좁아 관심분야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학회 마지막 날 캐나다 밴쿠버 성바오로병원의 음악치료사인 Satomi Kondo의 주제 “Music Therapy for Caregivers: Special Moments during Witnessing the Mystery of Life”는 매우 감동적인 것으로서 발표된 내용 중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두 편의 Hospice Pharmacia Luncheon symposium 이 흥미로웠는데 암성통증관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에 대한 것과 진행성 암환자의 위장관 폐색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맛스런 샌드위치도시락이 무료로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영국의 Dr. Derek Doyle과 싱가포르의 Dr. Cynthia Goh, 호주의 Professor Ian Maddocks의 기조강연도 인상적이었다. 그들 강연의 주제는 각각 “세계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도전과 전망”, “아시아 지역에서의 완화치료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치료를의 도전과 전망”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숙고하게 했다.

싱가포르의 Dr. Rosalie Shaw는 “Managing a Hospice Program” 강연으로 청중을 고무시켰다. 로자리는 호스피스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개괄적 연설을 시작으로 호스피스 실무의 실제적 적용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신적인 스태프가 호스피스 팀 활동에 참가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소진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조정자는 호스피스 스태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물리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신이나 방법들을 호스피스 스태프나 봉사자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가? 등의 실제적 논의들은 호스피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 모색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는 우리는 자주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쳐 좌절 할 수 있으므로, 팀 멤버들은 서로를 대할 때 환자를 다루는 것과 똑같이 배려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공적인 곳에서는 더 많이 인정하고 격려해야하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교정해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론만큼 실행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영국 에딘버러 ‘성골롬바호스피스’의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인 Research Fellow Jo Hockley는 그의 논문 “Reflections on the ‘setting up’ of Hospital-based Palliative Care Teams: do we need a framework?”에서 △병원PCT(Palliative Care Teams)의 역사적 발전과정 △병원PCT의 목적과 장점 및 기능 △병원PCT의 역할에서 팀의 내·외적 역동 △병원PCT 개발을 위한 적절한 틀 모색 등과 △영국 에딘버러 서부종합병원 PCT의 조사연구 결과로써 증상조절 측면에서 Nausea & Pain이 개선된 긍정적인 평가 △병원PCT가 경험하는 단점과 취약점 등 심도있는 분석자료를 제시해 팀 접근을 관건으로 고심하고 있는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관련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Poster session은 2개의 넓은 방에 질서정연하게 잘 전시되었고,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대한 포스터도 여러 편이 눈에 띄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단 한편만 발표자가 있었을 뿐 모든 포스터가 전시만 되어있어 질문이나 의견을 나누지 못하고 한번 둘러보는 정도에만 그쳐 각국에서 애써 마련한 자료들이 노력한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은 있었지만, 호스피스가 아·태지역에서 앞다투어 꽃필 날도 이제 머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그 열기는 뜨거웠다.

호스피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 40년이 되었고, 이제 1년 반 남짓한 2005년 3월에 제 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요즈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중심으로 그 준비가 한창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를 거

문,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호스피스를 활성화 시키려는 국가의 시범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협조해야하리라 본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적합한 호스피스 운영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표류하고있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재정상태,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서등을 감안할 때, 이 땅에 호스피스가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든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인 우리들은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며, 바람직

한 호스피스정책이 수립되어 대상자와 그의 가족들이 고통을 해소하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스피스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데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많은 것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학회에 다녀 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병원 당국과 호스피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학회기간 내내 따뜻한 배려와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 한국순교복자회 오사카분원 수녀님들과 노선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수채화

- 이해인 -

비 오는 날
유리창이 만든
한 폭의 수채화

선연하게 피어나는
고향의
산마을

나뭇잎에 달린
은빛 물방울 속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물결따라
풀잎 위엔
무지개 뜬다

그 우으로 흘러오는
영원이란 음악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히지 않는 것들을
속삭이는 빛소리

내가 살아온 날
남은 날을
헤아려 준다

창은 맑아서
그림을 그린다.